금주 법구

타인의 과실을 찾아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번뇌를 증대시킨다.
그는 번뇌의 소멸에서 떨어져 있다.
-법구경-

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0월 3일 수요일 (주간) 제 337 호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전북사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소박하고 뜻 있는 진산식

새 주지가 처음으로 소임을 맡은 절에 들어가는 것을 진산(晉山)이라 하며, 이 때 행하는 의식을 진산식 또는 입사식(入寺式)이라 한다. 즉 나아갈 '진(晉)'의 의미를 가진 진산식은 사찰의 운영과 여러 사무를 관장하는 주지 스님이 사중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때 부터인가 진산식은 새로 소임을 맡은 주지 스님의 명성과 법력에 걸맞게 지역의 스님들과 유지들을 대거 초청한 가운데 장엄스럽게 거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포교의 일환으로 사격(寺格)에 맞는 행사를 가질 필요성도 있지만, 일회성 행사에 많은 정재가 소요되고 사찰에 화환 등이 쇄도하는 등 일반 세속의 취임식 장면과 별반 다름이 없어 '불교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교구 본사와 주요 사찰이 주지 진산식을 갖지 않는 대신 신도와 주민들이 함께 하는, 차분하고 뜻 깊은 법회를 열어 신도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스님다운 진산식을 펼치는 주인공들은 바로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신임 주지인 평상 스님과 염불만일도량으로 유명한 금강산 건봉사의 주지 영도 스님.

평상 스님은 지난 9월 23일 일요법회에서의 법문으로 주지 진산식을 대체했다. 그러자 소임자 스님들과 신도들이 '스님의 뜻은 참으로 존경스럽지만, 너무 서운하다'며 10일 관음재일에 맞춰 교구 말사 스님들과 신도회 임원들의 상견례만을 갖자고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평상 스님은 종무원들에게 이것마저 절대로 외부에 알리지 말라며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한다.

건봉사 주지 영도스님은 진산식을 갖지 않는 대신 염불만일도량에 걸맞게 21일 오전 9시 30분 '청화스님 초청 국운융창 기원 호국 영령영가 천도대

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20일 저녁부터는 염불만일회 회원 등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해 염불삼매로 철야정진 한다.

건봉사 원주 철현스님은 "주지 스님이 개인적인 진산식 보다는 지역발전과 포교, 유주무주 고혼들을 천도하는 행사를 열 것을 지시해 신도들도 신심으로 동참하겠다고 연락이 오고있다"고 말했다.

수행자다운 검소한 진산식이 더욱 늘어나길 기원해 본다.

김재경(취재 1부 기자)

장 군 죽 비

◇일부 개신교인들 문화재관람료 징수반대로 종교간 불화 부채질. '지나친 신앙심은 도둑의 증거'라는 속담을 생각하게 한다. (3면)

◇조계종 환경위원회 · 불교환경연대 봉영사, 울진 왕피천 속사댐 반대 위한 정진(?) 돌입. 자비와 순리로 환경운동의 새 장 열기를…. (11면)

◇굶주림을 벗어나니 비만이라는 산이 기다리고, 비만을 넘어서니 오염된 먹을거리가 식탁을 차지하고 있다. 무얼 먹을 것인가? (15면)

◇ NGO 강원 〈참여불교 아카데미〉 설립된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쟁기질할 인재 배출과 대안 생산의 장으로 성장하기를…. (23면)

조계종 스님 20명 中 국빈 방문

8~12일, "한·중 불교교류 획기적 전기"… 정대 스님 불학원서 법문

한 · 중 불교교류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한 20명의 조계종대표단이 중국정부의 공식초청으로 8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조계종대표단은 8일 중국 종교국 엽소문 국장과 양국 문화 우호협력에 대해 환담하며, 9일에는 중국불교협회 도슬인 부회장등 관계자들과 한중 불교교류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기간중 정대 스님과 장쩌민 주석이나 주룽지 총리와의 면담이 성사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대 스님은 10일 중국 지도자스님들을 양성하는 불학원에서 학인들에게 법문도 한다.

조계종 대표단의 중국방문은 1992년 한 · 중 수교이후 진행돼온, 양국의 불교우호차원에서의 교류를 넘어 중국정부와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라는데 그 의미가 깊다.

그런만큼 이번 방문단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장 지하, 호계원장 월서, 전 종회의장 법등, 전 포교원장 정련스님 등 집행부와 중진스님들이 망라돼 있다.

이번 중국정부의 공식초청은 중국이 최근들어 활발해진 '한국불교배우기'를 더욱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의 구체적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불교전래 2000년을 맞는 중국이 문화혁명이후 사라진 불교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문화성 중국종교학회 산하에 한국불교문화중심을 설립하고, 중국불교와 가장 가까운 한국불교를 모델로 삼아 전통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 중국정부는 전통불교 중흥을 위해 중국문화예술 인터넷 종교문화사이트에 '한국불교문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종 한국불교 교리학습반과 불교문화강습반도 운영중이다. 또 중국대중이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범위에서 한국불교 서예, 미술, 사진, 시, 논문 등을 번역 출판하고, '한국불교문화' 전문잡지도 출간했다.

중국 종교국 산하 한국불교문화중심 하공송 대표는 "중국정부는 중국 전통불교와 가장 가까운 한국불교를 역수입하여 불교중흥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에 중국에서 사라진 전통 선불교가 살아있다'며 적극적인 전통 잇기에 나선 중국정부는 지난해 한중일 대회에서 중국불교협회를 통해 정대스님 초청 입장을 전달했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情 나누는 한가위 동국대 여학생부(실장 이혜은)는 추석을 4일 앞둔 9월27일 여학생실에서 '송편배우기 및 사랑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중국 일본 등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과 스님들이 참예한 이날 행사에서 정성들여 빚은 송편은 서울 중구 일대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 65세대에 전달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개신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반대"

목사 등 2백명 협의회 결성 … 조계종 '신중 반응'

개신교계가 9월21일 '국립공원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반대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사찰 문화재관람료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 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개신교계의 관람료 반대운동이 자칫 본질을 벗어나 종교간의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반대협의회(대표 신현균목사, 이하 관람료반대협)'는 9월 21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위한 1천만 범국민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관람료 반대협은 결성에 대한 취지 설명을 통해 △관람료 징수는 법적근거가 없다 △일괄징수는 관람자의 의사 무시 △관람료 징수주체가 국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관람료 반대협 실무간사 이승우 목사는 "사찰관람료 폐지는 시민 권리침해 차원이기에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폐지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키로 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등 신중한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다음주 신문 추석연휴로 12면 발행
지역에 따라 신문보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외유출 문화재 조사 등 문화재 보존정비 강화

내년 문화예산 1조 3452억

내년부터 해외유출문화재를 비롯하여 국가 및 지방문화재 보존정비가 강화된다.

문화관광부는 9월 25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 증가한 1조3천452억원을 편성하고, 국회 예산심의에 상정했다.

문화관광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 지정 문화재의 보존 정비 강화의 경우 지난해 1,198억원에 비해 200여억원이 늘어난 총 1400백15억원이 편성됐다. 이중에는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3억, 목조문화재 방충 방연 8억, 건조물 문화재관리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또 전통문화학교건립 48억, 문화재 지리정보체계구축 4억,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5억, 20개국 7만5000여점에 산재한 국외 유출문화재 일제히 조사에 4억이 책정됐다.

김원우 기자

중국 하남성 · 산시성 불교유적 순례

선불교의 뿌리를 찾아서

현대불교는 중국 선불교의 맥을 직접 느끼고자 '중국 불교문화기행'을 기획해 하남성 지방의 고도 정주, 낙양, 등봉을 비롯해 혜초, 원측 스님 등 신라 고승들의 발자취가 스며 있는 산시성 서안의 불교 유적을 찾아갑니다.

◇진시왕릉 병마용.

중국 무술영화의 무대로 더욱 잘 알려진 소림사에서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진작시켰던 역사의 흔적과 무술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3대 석굴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10만 여 불상들을 참배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에 저절로 탄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중국 최초(68년)의 사찰인 백마사에서는 원나라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시성 서안에서는 진시왕릉인 병마용을 비롯해 부처님 진신지골사리가 모셔진 법문사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양귀비의 자취가 어린 화청지 등을 둘러보게 됩니다. 또 북경에서는 천안문과 이화원, 만리장성 등도 답사합니다.

만리장성 · 소림사 · 용문석굴 · 법문사 · 병마용

◇일정: 10월22일(월)~10월27일(토) 5박6일
◇참가비: 95만원(포함내역: 공항세, 비자비/ 단 여권수속비는 별도)
◇접수및문의: (02)333-8091(담당: 김지훈, 윤지영)
◇접수기간: 10월6일(토)까지(여권 소지자는 1주일 연장 가능)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아주세계여행사
●후 원 : 중국하남여유집단유한공사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 하나카드 발급개시

【 부다피아 하나카드는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웃 불자들에게 실질적인 실천을 위한 불교복지 정신입니다. 신앙 활동을 펼치는 불자들은 이웃들에게 불교복지의 실천을 위해 발급합니다. 】

하나은행비자카드 특전+재물보시!

부다피아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 된 카드등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은행이나 기타 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년세대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도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불사행의 참 뜻을 받들기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주유할인 서비스(S-OiL)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항공상해보험, 행소니안심보험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스피드카드론

초기 연회비 면제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 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

하나은행 www.hanabank.co.kr
현대불교신문사 www.buddhapia.com